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최서연 의원,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 적합성 의문 제기 천서영 의원, 전주시 아동 보호구역 전무 지적... "지정 적극 검토해야"

전주시의회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 금암1·2동)은 이날 전주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과를 대상으로 전시컨벤션센터 설계 공모의 최종 공모 당선작의 독창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서연 의원



천서영 의원

최 의원은 디자인 유사성, 공사비 예산 등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선작의 독창성과 미관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지만, 디자인이 런던의 한 유명 건축가 작품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별 이미지 검색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두 건축물 간의 외형적 유사성을 뒷받침한다고 한다. 저작권 논란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당선작은 1,000억원 이하의 공사비로 구현 가능하다는 추정 예산서를 제출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인해 설계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전시컨벤션센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20년, 100년을 바라보는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당선작의 실현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작권과 예산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종합경기장개발과 관계자는 "아이디어 표절 여부는 형태, 구조, 평면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단순히 유사하다고 하여 표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의 제기에는 당사자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천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 대상 행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이 전주시에는 전무함을

지적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광주광역시 1,079개소, 전라남도 668개소, 대전광역시 155개소 등 타 지자체의 경우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활발히 추진하여 범죄로부터의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된 사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동보호구역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된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예산이 걸려있는 문제이지만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옥기 기자

호성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동장 정문구)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회장 박은희)는 18일,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김치 10박스 나눔 행사를 펼쳤다.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회원 10여 명이 정성껏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 10박

스는 관내 독거노인 10세대에 전달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박은희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장은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지속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서 종교간 화합 이벤트 콘서트 열려

전주에서 목회자와 스님이 '종교인 토크'에 이어 함께 합창을 하는 특별한 자리가 만들어졌다.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가 지난 18일 '가을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는 종교인, 신앙인 등 전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콘서트는 찬양, 피아노4중주, 색소폰, 솔로, 듀엣, 중창단 등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목회자와 스님의



토크 및 듀엣 공연이 펼쳐져 '종교간 화합'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김옥기 기자

종교화합의 의미를 더할 종교인 토크 시간에는 강모 목사와 자정스님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먼저 '예수가 왔다'와 '만남'이라는 곡을 손잡고 합창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종일 피아니스트는 "신천지 도마지파에는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겸비한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의 노래를 배우고,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2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구급대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지킴이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위해 홍보 캠페인 등 추진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안전한 현장 활동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캠페인 △폭행 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폭행 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경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구급대



전주완산소방서는 안전한 현장 활동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

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서부시장 청년창업공간 활성화 방안 모색

전주시, 청소년들 창의적 아이디어 통해 청년물 2층 공간 재구성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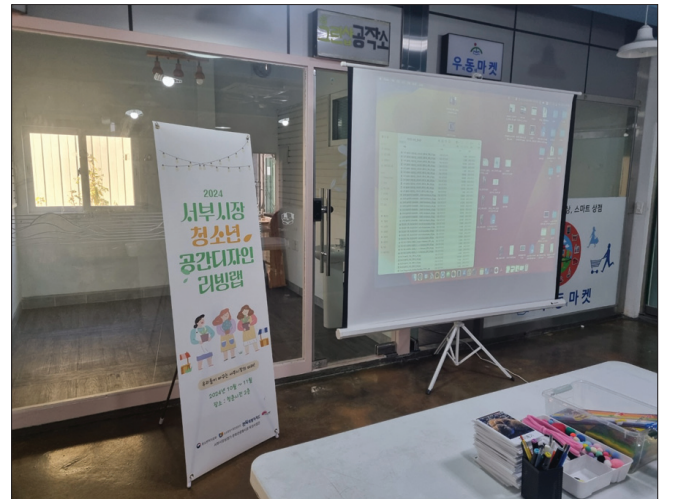
전주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한 서부시장·상점가의 청년창업공간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시는 서부시장상점가 문화관광형성사업단, 서부시장상점가상인회와 함께 서부시장에 조성된 청년창업공간인 '청춘시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래 고재인 청소년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리빙랩 프로젝트는 지난 13일 지역 청소년 20여 명이 참여한 첫 번째 시간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과 28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고, 더불어 서부시장 청년들의 점포주 연령층을 확대운영하여 1층 공간의 추가 모집 공고를 통해 활기찬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활용해 올해 서부시장상점가에 4억 6000만 원을 투입했다.

또한 시는 서부시장상점가 문화관광형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관광 연계 문화축제인 '더좋은밤에 가깝추세'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 △동행축제 등 활성화 이벤트 △상인 역량 강화교육 △주역의 서부포차 운영(아시안 시범 운영) 등을 추



전주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한 서부시장·상점가의 청년창업공간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진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에도 남녀노소 다양한 고객층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상인 자생력 강화를 통해 서부시장상점가를 지역밀착형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방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특화 요소 고

객인지도 개선율이 높아져 신규 고객들이 유입되는 것은 물론 시장 상인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10년 후, 20년 후에도 우리의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춘 경제시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